

碧史 李佑成의 조선시대사 이해

金文植*

- | | |
|----------------|----------------|
| I. 머리말 | IV. 실학사상과 개화사상 |
| II. 사대부의 유교 정치 | V. 맺음말 |
| III. 실학의 시대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이우성이 조선시대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첫 번째는 14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의 시기로 성리학을 학문적 바탕으로 하는 사대부의 유교 정치가 활발하게 펼쳐진 시대였다. 두 번째는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시기로 서울과 근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실 문제를 실제적으로 사고하는 실학자들이 활동한 시대였다. 세 번째는 19세기 후반의 시기로 실학사상이 개화사상으로 이어진 시대였다.

이우성은 조선시대의 역사는 사대부가 주도하였으며, 사대부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계속 분화한 것으로 보았다. 사대부 가운데 실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훈구와 별열이었고,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에는 산림, 서울과 근기 지역의 실학자, 지방에 거주하는 사대부가 있었다. 이우성은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국왕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우성은 실학이란 당대의 현실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학문이며, 실학이 나타난 시기는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실학자가 활동한 지역은 서울과 근기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학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학문 이라고 보았으며, 한국의 근대화가 달성되기 이전과 이후에는 실학을 연구하는 초점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우성은 사대부의 학문적 본령에 해당하는 경학, 성리학, 예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하였다. 그는 정약용이나 권철신과 같은 실학자의 경학에 관심을 가졌으나 다른 학자들의 경학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또한 성리학과 예학은 15세기와 16세기에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현실적 의의가 희박한 학문이 된 것으로 보았다.

이우성의 조선시대사 연구는 사대부의 학문 경향을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긴밀히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시기별로 당면한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경제론을 중시하였다.

주제어 : 이우성, 조선시대사, 사대부, 실학, 경제론

I. 머리말

碧史 李佑成(1925~2017)은 밀양에서 태어나 어릴 때 집안에서 한학을 익혔고, 20대에는 독학으로 신학문과 서양 지식을 익혔다.¹⁾ 그의 家學을 보면 증조부인 恒齋 李翊九(1838~1912)는 性齋 許傳(1797~1886)의 문인으로 『讀史劄記』라는 역사서를 집필하였고, 조부인 省軒 李炳憲(1859~1938)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다룬 『朝鮮史綱目』을 집필하였다.²⁾ 이러한 가학의 영향으로 그의 집안에는 만 권에 가까운 漢籍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우성이 익힌 신학문과 서양 지식은 전문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집안 친척이 준 책을 통해서였다. 일제 말기에 學兵으로 나가게 된 자형 曹圭善은 일본어로 된 철학책과 역사책을 주었다. 또한 이우성이 20대에 가깝게 지냈던 인물 중에 좌파 계열의 지식인들이 있다. 그는 국어학을 전공하고 正進學校 교사였던 柳烈, 역사학을 전공하고 부산중학교 교사였던 孫永鍾,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경남여고 교사였던 柳壽와 교류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越北하였다.

이우성은 1947년에 23세의 나이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 1954년에 졸업하였고, 졸업하던 해에 동아대학 문학부 교수가 되면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우성의 학술 논문은 1957년부터 2004년까지 이어지며,³⁾ 초기에는 고려시대사에 관한 논문이 많았고, 조선시대사에 관한 논문은 전 시기에 걸쳐 발표되었다. 고려시대사 연구와 관련하여, 이우성은 「自撰年譜」에서 1954년 동아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姜晉哲 교수와 한 학과에 근무하게 되면서 고려사에 관한 공부에 착수하였다고

1) 이우성의 생애에 대해서는 1990년에 본인이 작성한 「自撰年譜」, 2009년에 金時鄴이 작성한 「碧史 李佑成先生 연보」, 이이화와 대담한 「선비정신을 구현한 역사학자」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는 모두 李佑成著作集 8, 『高陽漫錄』(창비, 2010)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李佑成著作集은 총 8책이며, 1책 『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책 『韓國中世社會研究』, 3책 『韓國古典의 發見』, 4책 『實是學舍散藁』, 5책 『碧史館文存(上)-詩』, 6책 『碧史館文存(下)-散文』, 7책 『新羅四山碑銘 校譯』, 8책 『高陽漫錄-韓國學의 底邊』으로 구성되어 있다.

2) 李炳憲는 1917년에 許薰, 盧相稷 등과 함께 밀양의 退老里에서 『星湖先生文集』 27권을 간행하였다. 김문식, 「1917년 성호 문집의 간행을 위한 통문」 『문헌과해석』 87, 문헌과해석사, 2021, 143~153면 참조.

3) 이우성은 32세이던 1957년에 「實學派의 文學-朴燕巖의 경우」(『國語國文學』 16)를 발표하였고, 79세이던 2004년에 「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 史學의 形成과 『東史綱目』」(『學術院論文集』 43)을 발표하였다.

하였다. 그는 실학의 비판 정신이 사대부의 계층적 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대부의 기원을 찾아 고려 후기까지 소급하면서 고려사회의 신분제도를 규명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이우성의 조선시대사 연구는 實學 연구에서 출발하여, 조선 전기의 士大夫(士林)와 조선 후기의 山林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의 실학에 관한 논문은 「實學派의 文學-朴燕巖의 경우」(1957), 「18세기 서울의 都市의 樣相」(1963), 「조선 후기 近畿學派에 있어서 正統論의 展開」(1966), 「實學研究 序說」(1970) 등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발표되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사대부에 대해서는 「高麗末·李朝初의 漁夫歌-唱과 詠을 통해 본 ‘士大夫文學’ 性格의 一端」(1964),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1971), 「韓國 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1979) 등이 있고, 조선 후기의 산림에 대해서는 「李朝 儒敎政治와 ‘山林’의 存在」(1975), 「17세기 政治社會의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1992)을 거론할 수 있다.

1971년에 이우성은 자신의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필자 자신이 한국의 유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남달리 어릴 적부터 한문으로 된 유교 서적 등을 읽고 배우기는 했으나, 대학 시절부터 학문적 관심은 한국의 역사 및 사회제도에 쏠리게 되고, 유교 사상에 대해서는 단지 상식의 수준에서 방치해 버렸다.⁴⁾

실제로 이우성의 학술 논문은 한국의 역사와 사회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성되었으며, 조선시대사에 관한 논문도 사회사적 접근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이우성이 조선시대사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문에서는 조선시대를 ‘사대부의 유교 정치’, ‘실학의 시대’,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이라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의 이해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시기는

4)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0면). 이우성의 연구물은 李佑成著作集 8책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본고의 자료는 이를 底本으로 하였으나 각 연구물이 처음 작성된 시기를 표시하기 위해 글이 발표된 시기와 수록된 서적을 표시하였다. 괄호 안에는 李佑成著作集의 서명과 면수를 제시하였다. 이하 동일함.

14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19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이우성의 조선시대사 이해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Ⅱ. 사대부의 유교 정치

1971년에 이우성은 한국의 유교사를 정리하면서 시기를 文詞學 시대(신라 통일기~고려말, 7세기 후반~14세기 후반), 性理學 시대(고려말~이조 중기, 14세기 말~17세기 말), 實學 시대(이조 후기~말기, 18세기 초~19세기 중엽)로 구분하여 보았다.⁵⁾

첫째, 문사학의 시대는 유교가 불교에 대해 종속적 지위를 차지한 시기, 즉 불교가 유교보다 우위에 있었던 시기이다. 그는 통일신라기에 유교는 亞流 貴族들에게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문학적 교양을 공급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아류 귀족들이 文臣 귀족 집단을 형성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와 국내의 典章制度를 정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성리학의 시대는 한국 사상사에서 유교가 가장 결정적 의미를 가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유교는 불교 대신에 국교적 지위를 확립하여 국가의 통치체제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윤리도덕으로 보급되었고, 우주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심화시킨 탁월한 학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하였다.

성리학(신유학)의 시대가 열린 것은 고려 후기에 귀족과 사대부의 정권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士大夫는 독서하는 ‘士’와 벼슬하는 ‘大夫’를 합한 말로, 고려말 무신 집권기에 등장한 새로운 관료를 말한다. 이우성은 사대부의 개념과 관련하여 박지원의 「양반전」을 중요한 자료로 제시하였다.

독서(讀書)하는 사람을 ‘사(士)’라 하고, 행정(行政)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부(大夫)’라 하며, 도덕을 지닌 사람을 ‘군자(君子)’라 한다. 무반(武班)이 되면 서쪽에 열 지어 서고, 문반(文班)이 되면 동쪽에 차례대로 선다. 이것을 ‘양반(兩

5)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 · 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0~271면).

班)’이라고 한다.⁶⁾

이우성은 사대부는 지방의 鄉吏 출신으로 能文能吏한 관료였고, 경제적으로는 중 소 지주였던 것으로 파악한다. 고려말에 사대부는 중앙권력층에 대항하여 전제 개혁을 단행하고 과전법을 제정했으며, 이들이 耕者有田의 원칙을 부르짖고 대토지 소유를 강력히 반대한 사실은 鄭道傳의 『朝鮮經國典』에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시간이 흘러 태종·세조·성종 대의 공신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토지와 많은 노비를 소유하여 기성 세력으로 권위를 가지는 ‘勳舊’ 또는 왕실 가족과 사적 관계를 맺고 권세를 부리는 ‘權貴’가 되었다. 그리고 16세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되는 ‘이조중기’에는 사대부의 고유 규범이 잘 발휘되어 15세기에 권력을 장악했던 훈구와 권귀가 제거되고, 사대부의 公論인 淸議가 정치를 좌우하였다. 16세기의 정치를 좌우한 사대부들은 재야에서 새롭게 진출한 ‘士林’ 또는 ‘士流’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士林이라 불리는 사대부가 지배한 시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대부의 위신이 실추되고 그들의 고유 규범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사대부 가운데 勳戚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개의 가문들이 연합하여 ‘閥閥’을 이루면서 중앙 정권을 장악하였고, 별열은 사대부의 고유 규범을 지탱하고 있던 재야 사대부의 중앙 진출을 막아버렸다. 재야 사대부는 일반적인 보수성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의 신기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상업 고리대 자본이 농촌에 침투함으로써 중소 지주인 재야 사대부의 경제적 토대는 계속 침식되었다. 이 시기에 재야 사대부는 大儒라는 重望으로 ‘山林’의 형식적 예우에 팔려 별열의 정치적 이용물로 생애를 마치는 假道學者가 되는 경우와 士의 지조를 지키면서 별열정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회개혁을 학문으로 구현하는데 그치는 실학과 학자가 되는 경우로 갈라졌다. 그런데 재야 사대부는 산림이라 불리는 가도학자가 되든 사회개혁을 외치는 실학자가 되든 정치적 대체 세력으로서의 힘과 지위를 상실한 것은 일치하였다.⁷⁾

이우성은 1975년에 들어와 17세기에 재야 사대부에서 등장한 山林을 본격적으로

6) 朴趾源, 『燕巖集』 권8, 放謫閣外傳, 「兩班傳」, “讀書曰士, 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武階列西, 文秩敍東, 是爲兩班.”

7) 「李朝 士大夫의 基本性格」, 『民族文化研究의 方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50~258면).

다루었다. 아직 역사학자들이 ‘산림’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는 17세기에 과거제도의 폐단이 나타나 과거를 외면하는 것을 금지로 삼는 선비들이 늘어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림이라고 현실 정치까지 외면하지는 못하였다. 유교 국가에서 ‘儒者’를 관리로 등용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유자 자신도 국가를 완전히 등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우성은 黃玿의 『梅泉野錄』을 인용하여, 산림이 정치와 연결된 것은 鄭仁弘에게서 시작되고, 인조반정 이후 서인계 勳臣들은 산림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효종, 현종, 숙종 대는 산림의 전성기이자 당쟁이 가장 격렬한 시기였으며, 관인들이 정치적 이해를 달리는 사안은 산림들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때 黨爭의 주제는 국가의 典禮를 다루는 禮訟이었고, 그 배경에는 양쪽 당파의 정치적 입장이 깔려 있었다.⁸⁾

그러면 사대부의 유교 정치는 어떠하였을까? 이우성은 고려말에 사대부가 불교를 배격하면서 신유학을 강조할 때는 현실적인 사회윤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보았다. 사대부들은 인간은 현실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가정에서는 가족에 관한 논리, 국가와 사회에는 군신 간의 논리와 장유 봉우 간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사대부들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은 신유학의 형이상학적 측면이 아니라 신유학의 명분론과 의리론이었고, 이들이 불교에 대해 투쟁한 것은 불교와 일체가 되어 있는 중앙권력층 내지는 大莊園의 주인이었던 世臣巨室에 대한 투쟁이었다. 신유학이 불교에 승리한 것은 사대부의 사상적 승리인 동시에 정치적 승리, 사회적 승리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주자는 도덕적 질서를 말하면서 君과 臣, 父와 子, 夫와 婦를 이어서 地主와 佃戶를 같이 거론하였고, 君과 臣, 父와 子의 관계와 함께 지주와 전호의 관계도 일정 불변의 도덕 질서 속에 위치시켰다. 신유학의 명분론과 의리론이 지주에 대한 전호의 의무로 연장된 것이다. 주자는 「勸農文」에서 지주와 전호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사대부들이 신유학의 명분론과 의리론을 받아들인 것은 지주와 전호 사이의 도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5~16세기에 사대부는 신유학의 이념 위에 정치, 교육, 문물제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켰고, 유명한 학자들이 계속 출현하여 신유학의 理氣철학적 연구를 심화시켰다.

8) 「李朝 儒敎政治와 ‘山林’의 存在」, 『東洋學學術會議 論文集』, 성균관대학교, 1975(『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99~308면).

16세기에 理氣互發論을 정밀하게 다룬 李退溪와 氣發理乘一途論을 독자적으로 제출한 李栗谷은 이 시기의 신유학을 대표하는 巨星이었다.⁹⁾

이우성은 16세기에 등장한 사림파는 15세기 사대부의 관학적 아카데미즘을 물려받지 않고 정치와 문화를 분리하여 보았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은 이퇴계라고 하였다. 사림파는 사대부 자제들이 참다운 성리학을 통해 심성을 바로잡고 정신풍토를 정화함으로써 이상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조선을 ‘東魯’라 불렀다. 특히 이퇴계는 주자학을 계승하고 眞西山(陳德秀)의 『心經』을 존중하여 내면세계에의 침잠을 통한 인간적 진실을 추구하였으며, 고인의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올바른 학문의 길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퇴계는 書院을 건립하고 성리학을 토착화함으로써, 사림 정치가 본격화되어 성리학적 淸議가 정치를 주도하며, 학자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를 거쳐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究極의 사업으로 하여 역사에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⁰⁾

그러나 이퇴계 학파와 이율곡 학파는 그 에피고넨 즉 추종자들에 의해 생기를 잃은 변색한 이론과 형식적인 예법 논쟁을 일삼게 되었고, 이는 당파 싸움과 연결되어 사대부 계급의 분열과 분화를 촉진시켰다. 17세기 중엽이 되자 승자측(이율곡 학파)과 패자측(이퇴계 학파)의 역관계는 고정되었으며, 승자측은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옹호하기 위해 성리학의 권위주의적 측면을 강화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제 신유학은 초기의 발랄한 진취성을 상실하고 한국인의 발전을 제약하는 정신적 질곡이 되었으며, 패자측 사람과 그 후예들은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워나갔다. 패자측의 일부는 성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성리학이 소홀히 했던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루었고, 다른 일부는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현실 문제에 접근하였다. 이것이 18세기 이후의 실학운동이다.¹¹⁾

이우성은 18세기 이후에는 산림의 역할도 축소된 것으로 보았다. 영조는 산림에게 국가정책의 실질적 입안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고 상징적 존재로 대우하였다.

9)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4~278면).

10) 「李退溪와 書院創設運動-中央에 있어서 官學的의 아카데미즘의 退化와 地方에 있어서 士林派 哲學의 擡頭」, 『退溪學報』 19, 1978(『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327~336면).

11)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9면).

이제 산림은 유교를 부식하여 國脈을 유지해 온 유교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순조 이후 왕실의 외척들이 정권을 농단하면서 산림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세도가와 결탁하였다.¹²⁾

이우성은 신유학이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았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사변적 해석으로 중세 신분주의적 계층사회 질서를 강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통론적 이념을 구현시켜 中華主義的 세계관을 확립한 것이다.¹³⁾

Ⅲ. 실학의 시대

이우성은 1957년에 처음 발표한 논문에서 실학에 대한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¹⁴⁾

- 1) 실학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서울 및 近畿 지역에서만 발생하였다.
- 2) 실학의 담당자는 관료국가의 권력 체계에서 이탈된 士이다.
- 3) 농촌 토착적 환경에서 성장한 근기 지방[廣州]의 성호 계열은 사고가 다분히 복고적이고 고답적이다.
- 4) 도시적 분위기에서 자라난 서울 城中의 연암 계열은 생활·의식·기분이 전진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도시 서민층(商人·手工業者·胥吏·僉從·賤隸 등)에 소식이 통하였다.

이우성의 이러한 구상은 1963년에 이용후생파의 성립 배경을 검토하는 논문으로 이어졌고,¹⁵⁾ 1970년에 「實學研究 序說」이란 논문으로 일단락되었다.¹⁶⁾

12) 「李朝 儒敎政治와 '山林'의 存在」, 『東洋學學術會議 論文集』, 성균관대학교, 1975(『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310~312면).

13)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9~280면).

14) 「實學派의 文學-朴燕巖의 경우」, 『國語國文學』 16, 1957.

15) 「18세기 서울의 都市의 樣相-實學派 특히 利用厚生派의 성립 背景」, 『鄉土서울』 17, 1963.

16) 「實學研究 序說」, 『文化批評』 7·8, 1970 가을;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1973 재수록.

이우성은 봉건사회의 안정기에는 禮學과 性理學이 발전하고 심화된 實學이었으나, 이조 중엽 이후로 예학은 의식화되고 성리학은 관념화되면서 현실적인 의의가 희박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宋時烈 계열이 주장한 尊周大義論은 특수 집권층인 ‘閥閥’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고, 국민을 정신적으로 압박하였다고 보았다. 18세기의 실학은 이렇게 비현실적인 학문을 바로잡아 현실성을 되찾고, 실제 사정에 입각한 실제적 사고를 하기 위한 학풍이었다.¹⁷⁾

이우성은 실학이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서울과 근기 지역의 학자들에 게 나타나며, 세 개의 유파가 각각 하나의 시기를 대표하면서 전개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실학자의 출신을 세습적 특수 집권층인 ‘별열’과 대비되는 영구 몰락 실권층인 ‘士’로 보았다. 별열과 실학자가 모두 사대부 출신이라는 점은 같지만, 실학자의 현실적 처지는 서민과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우성은 이 부분을 서술하면서 李重煥의 『擇里志』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다.¹⁸⁾

서울 및 근기 지역의 실학자는 삼남 지역에 거주하는 ‘士’와도 구분되었다. 삼남 지역의 士는 중소 토지 소유자로 안락하게 살면서 예학과 성리학 등 주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들었다. 그러나 실학자는 농토보다 정치권력에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고, 몰락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였기에 현실을 개조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성향을 띠었다. 이우성은 서울 및 근기 지역의 사대부, 즉 실학자가 농토보다 정치권력에 기대하였다는 근거로 崔瑄煥의 『顧問備略』을 제시하였다.¹⁹⁾

이우성이 주장하는 실학의 세 시기와 세 유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기 經世致用派(18세기 전반)

성호 이익을 대종으로 하며, 토지제도, 행정기구,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

17) 「實學研究 序說」, 『文化批評』 7·8, 1970 가을;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1973 재수록(『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16~18면).

18) 李重煥, 『擇里志』, 「四民總論」, “或欲以士大夫, 侮農工賈, 以農工賈, 而羨士大夫, 則皆不知其本者也.”

19) 崔瑄煥, 『顧問備略』 권4, 「人才」, “夫貴族之所業, 惟仕宦一條路而已. 既無營生之道, 仍無資身之策, 奔走科試, 流盡歲月. 終身不得一資, 窮年喫盡萬苦. 白首布衣, 糟糠不繼, 殭于道路, 填于溝壑者, 比比皆然.”

중하는 유파이다. 토지개혁을 통해 소농민에게 균등한 토지 소유를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여 농촌에서 몰락하는 소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종래의 예학과 성리학을 정리하였으며, 예설과 성리설의 비생산적 관념론적 風尙을 반대하였다. 성호 후계자 중 일부가 천주교로 전환하여 미래의 천국을 구현하려 하였다.

② 제2기 利用厚生派(18세기 후반)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상공업의 유통, 생산기구, 기술혁신을 지표로 하는 유파이다. 어용상인, 대상인층의 독점적 이익을 반대하고 대중의 소비생활에 직결된 일반 소영업, 소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성장을 옹호하였다. 도시 서민층의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새로운 문학예술 운동을 통해 서민의 세계를 신선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제3기 實事求是派(19세기 전반)

완당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며 經書, 金石, 典故 고증을 위주로 하는 유파이다. 민족문화에 침잠하여 주체적 인식을 선명히 하고 금석과 전고 등에서 격조 높은 학문성을 보여준다. 완당은 연해에 출몰하는 서양 선박과 점차 높아지는 국민적 불안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주체적 자세의 확립을 강조하였고, 중인 출신 인재들과 교유하며 양반층의 실학사상이 중인층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이우성은 실학의 세 유파를 설명하면서 丁若鏞을 다소 예외적인 존재로 다루었다. 정약용이 활동한 시기는 제2기와 제3기에 걸쳐 있고, 그의 학풍은 제1기와 제2기의 사조가 합쳐져 있으며, 그의 방대한 고전연구는 제3기 실사구시학의 추동력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우성은 정약용이 성호학파에 기본 입장을 두고, 연암학파의 이용후생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기술 이론의 수준은 연암학파를 넘어선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보았다.²⁰⁾

이우성은 실학의 유파 가운데 실사구시파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세치용파와 이용후생파는 당면한 현실을 과제로 삼았으나 실사구시파는 현실

20) 「實學研究 序說」, 『文化批評』 7·8, 1970 가을;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1973 재수록(『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32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사구시파가 현실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는 생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중의 실사구시파는 그 학문의 내력으로 보아 원래 경세치용파의 한 부용(附庸)에 불과하였고, 마지막에 완당이 도미(掉尾)의 대업으로 독자적 영역을 이룬 관(觀)이 있으나 ‘경세치용’과 ‘이용후생’ 두 계열이 모두 당시의 당면현실을 과제로 삼았음에 대하여 실사구시파는 경학(經學)·금석학(金石學) 등 고전(古典)과 진적(陳跡)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학문적 관심이 실사구시파가 아닌 다른 두 계열에 먼저 쏠리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²¹⁾

이우성은 실학과 주자학(성리학)의 관계에 대해, 실학을 주자학의 연장이라 보는 견해와 주자학에 반대했다는 견해를 모두 반대하였다. 그가 실학에서 중시한 것은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실제적 사고였다.

실학이 주자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하다. 실학은 주자학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실학은 주자학을 반대하고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이 두 견해의 표현 자체가 타당치 못할뿐더러, 그 점에 대해 여기선 따지지 않겠다. 실학이 주자학 그것의 연장이든 반대이든, 그것보다도 실학이 사상적으로 주자학적 세계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아의 자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실지 실정에 입각한 실제적 사고(思考)로 성립되어 있었던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²²⁾

정권에서 이탈한 패자층의 사람들 및 그 후예들은 당시의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식을 잠재적으로 키워나갔다. 혹은 성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종래 성리학이 소홀했던 사회·경제적 문제를 독자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다루기도 하고, 혹은 성리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회피하면서도 처음부터 성리학을 부정

21) 「18세기 서울의 都市의 樣相-實學派 특히 利用厚生派의 성립 배경」, 『鄉土서울』 17, 1963(『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36면).

22) 「實學研究 序說」, 『文化批評』 7·8, 1970 가을; 『實學研究入門』, 一潮閣, 1973 재수록(『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33~34면).

적으로 생각하는 견지에서 현실문제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18세기 이후 한국의 실학운동이었다.²³⁾

이를 보면 이우성은 실학과 주자학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논쟁에서 한걸음 비켜나 있었고, 실학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에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임을 강조하였다. 이우성이 ‘성리학의 테두리 내에서’ 일어난 실학운동을 인정한 것은 安鼎福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⁴⁾

이우성은 실학의 성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근대적 사유에 매우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하였다.²⁵⁾

- ① 형이상적·사변적 학문에 대한 실용·실증주의 제창
- ② 우주 자연적 질서로부터 인간사회 질서를 분리시킴
- ③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부정과 독자적 민족관의 주장
- ④ 사·농·공·상의 신분제에 관한 비판과 새로운 직업관의 형성

이러한 이우성의 설은 1973년 歷史學會에서 편찬한 『實學研究入門』의 序說이 되었고, 李基白이 개설서로 편찬한 『韓國史新論』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학계의 定說이 되었다.²⁶⁾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최초로 ‘실학’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 사람은 千寬宇(1925~1991)였다. 그는 1952년에 발표한 「礪溪 柳馨遠 研究」에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신학풍인 실학을 ‘新思潮’라고 규정하고, 그 발생과 추이를 정리하였다. 천관우는 신사조의 추이를 준비기, 맹아기, 전성기라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23)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79면).

24) 李佑成은 安鼎福의 『東史綱目』을 ‘경세치용파의 사학’ 내지는 ‘실학파의 사학’으로 규정하였다(「李朝後期 近畿學派에 있어서 史學의 形成과 『東史綱目』」, 『學術院論文集』 43, 2004(『高陽漫錄』, 60~61면).

25)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80~281면).

26) 李基白은 『韓國史新論』 초판(일조각, 1967)에서 이우성의 「실학파의 문학」을, 『韓國史新論』 개정판(일조각, 1976)에서 이우성의 「실학연구서설」을 참고문헌으로 수록하였다.

각 시기를 100년씩으로 보면서 대표적 인물들을 거론하였다.²⁷⁾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준비기(16세기 중엽~17세기 중엽); 한백겸, 이수광, 김육, 권문해
- ② 맹아기(17세기 중엽~18세기 중엽); 유형원, 박세당, 이익, 안정복, 이중환, 신경준, 서명응
- ③ 전성기(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성해응, 정약용, 김정희, 이규경, 최한기

이상 천관우의 설을 이우성의 설과 비교하면, 이우성은 실학의 시기, 지역, 실학자를 더욱 제한하고, 실학자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학문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우성의 실학 연구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실학을 연구하는 당대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면서 실학의 특성에 대한 고민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이우성은 실학 연구가 활발했던 1960년대는 연구자들 사이에 ‘조국 근대화’라는 공감된 명제가 있었고, 실학을 정신적 자원으로 발굴하여 당대 사회에 활용하려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이 시기에 제창한 ‘조국근대화’는 곧 자본주의화·산업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전국 곳곳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공장을 세우고 과학기술의 도입·발전과 유통구조의 개혁 등, 정부·자본가·근로계층이 일체가 되어 생산과 경쟁에 여념이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백화난만한 관(觀)을 보였던 실학연구도 가일층 심화되어 실학파를 몇 개의 유파로 정리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성격이 좀 더 선명해졌다. 경세치용파·이용후생파·실사구시파로 나누어놓고 그중에서 주로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경세치용파와 기술혁신파 유통 확대를 주장하는 이용후생파에 역점을 두었다. 조국근대화의 달성에 있어서 실학파의 주장들은 바로 오늘의 의식에 연결되는 것이며, 따라서 실학 그것이 또한 오늘의 실학일 수 있는 것이었다.²⁸⁾

27) 千寬宇, 「礪溪 柳馨遠 研究」, 『歷史學報』 2·3, 역사학회, 1952·1953.

28) 「韓國에서의 實學研究 현황과 동아시아 連帶意識」, 『일본 동아시아 실학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94(『實是學舍散藁』, 229~230면).

그러나 한국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신흥공업국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조국 근대화’라는 용어도 사라져 버렸다. 이제 한국은 ‘선진조국의 창조’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고, 실학 연구에서 찾았던 근대적 사유도 현실적인 의미가 크게 약해졌다. 1994년에 이우성은 실학 연구가 전환기를 맞았으며, 21세기에 대처할 사상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여기 이르러 실학연구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조후기의 실학이 근대지향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깝게 느껴왔는데 근대화라는 용어마저 사라진 버린 마당에 매력이 전과 같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제일주의·물질지상주의가 인간을 이욕(利慾)의 화신으로 만들어, 탐학·사치·방종을 일삼고 재화를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는 지경이며, 산업시설을 핑계로 산천을 마구잡이로 추착(樵鑿)하여 자연이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로 오면서 날로 더욱 심해졌다. 사회의 비리가 확산 일로에 있고 자연의 파괴와 공해의 심각성을 필설(筆舌)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성·도덕성의 회복과 끝없는 이윤추구에 대한 일정한 절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²⁹⁾

이를 보면 이우성은 실학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에 대한 실제적 사고이며, 당대의 현실에 변화가 있다면 학문의 초점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IV. 실학사상과 개화사상

이우성은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나타난 실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현실 문제에 입각하여 사물을 객관적이고 경험론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사유의 맹아가 움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실학에서 움튼 근대적 사유의 맹아는 19세기 후반에 서양 문화와 접촉하면서 개화운동으로 발전하였고, 그때까지 성리학

29) 「韓國에서의 實學研究 현황과 동아시아 連帶意識」, 『일본 동아시아 실학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94(『實是學舍散藁』, 230면).

의 전통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개화운동을 거부한 것으로 보았다.³⁰⁾

이우성은 실학의 세 유파인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시파가 모두 개화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용후생파가 제기한 개국통상론은 개항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고, 경세치용파의 제도개혁론은 개화기 때 관제 개혁의 연원이 되었으며, 실사구시파는 중인층 인물을 통해 개화사상의 형성과 개화당의 형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실학의 3파 중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 등 이용후생파의 개국통상론(開國通商論)은 개항 당시의 주도적 이론의 바탕이 되었고,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계몽의 경세치용파의 제도개혁론(制度改革論)은 개화시대 관제개혁의 한 연원이 되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파는 이상적(李尙迪)·오경석(吳慶錫) 등 중인층 인사들을 통하여 역시 개화사상의 형성과 개화당(開化黨)의 활동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³¹⁾

실학의 세 유파가 등장한 시기로 볼 때 개화사상이 등장한 시기와 가장 가까운 것은 김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실사구시파였다. 이우성은 김정희가 우리나라에서 금석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시켰고, 금석문의 연구를 통해 신라사를 새롭게 조명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³²⁾

이우성은 김정희가 詩作에서 袁枚의 性靈論을 받아들여 전통적인 규율이나 질곡에서 자기를 해방하려 하였으며, 그의 중인층 제자들은 스승의 성령론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았다. 이때 거론된 김정희의 제자는 趙秀三, 張混, 李尙迪, 張之琬, 崔瑄煥, 鄭壽銅 등이었다. 이 중에서 장지완은 律科 집안의 중인으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였고, 최성환은 陰陽科 집안의 중인으로 ‘我’의 자각을 중시하였다. 정수동은 譯科 집안의 중인으로 혼자서 걷는 길을 행동화하였다. 이우성은 3인의 중인에게서 자율적 자유를 추구하는 특이한 인간상을 발견하였다.³³⁾ 근대적 인간상의 발견이었다.

30) 「韓國儒敎에 관한 斷章-新儒學과 士大夫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文學과知性』 5, 1971·가을(『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281면).

31) 「開化期의 成均館」, 『成均館大學校史』, 1978(『實是學舍散藁』, 238면).

32) 「韓國金石文追補에 대하여」, 『歷史學報』 40, 1968(『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414면).

33) 「秋史와 中人層의 性靈論」, 『韓國漢文學研究』 5, 1981(『實是學舍散藁』, 179~186면).

이우성은 崔漢綺가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우성은 우선 최한기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학계에 제공하였다. 그는 1970년에 최한기가 작성한 「養閒亭記」를 소개하고,³⁴⁾ 1971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明南樓叢書』를 편집 간행하는 사업을 주도하였다. 같은 해에 그는 장서각에 소장된 『文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朔寧崔氏世譜』를 바탕으로 최한기의 家系와 年表를 작성하였고,³⁵⁾ 1985년에는 『명남루총서』에 추가로 발견된 자료를 더하여 『明南樓全集』을 간행하였다.³⁶⁾ 그리고 1991년에는 이견창의 『明美堂散稿』에 수록된 「惠岡崔公傳」을 발견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³⁷⁾ 이우성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학계에서 최한기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우성은 실학이 유교 경전의 연역을 바탕으로 하는 ‘經學의 실학’이라면, 최한기의 실학은 曆算物理에 바탕을 둔 ‘科學의 실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실학사상의 큰 轉回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최한기가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적 역사관을 가졌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進運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고루한 처지에 있음을 개탄하고 開國通商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최한기는 농민·수공업자·상인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하고 신분적 제약을 철폐할 것을 언급하면서 진보적 도시 평민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념을 가졌다고 하였다.³⁸⁾

이우성은 최한기의 학문은 정약용보다 시민적 입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실학이며, 실학을 개화사상에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해강의 학문은 시민적 입장에 한걸음 더 다가선 실학이다. 다산을 마지막으로 한 선행 실학자들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더욱 전진적으로 전개시켜

34) 「崔漢綺의生涯와思想」, 『韓國近代人物百人選』, 『신동아』 부록, 1970(『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165~166면).

35) 「崔漢綺의 家系와 年表」, 『劉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152~160면).

36) 「崔漢綺의 社會觀-「氣學」과 「人政」의 連繫 위에서」, 『東洋學』 18, 1988(『實是學舍散藁』, 205~206면).

37) 「崔漢綺의 社會的 處地와 서울 생활-崔漢綺 研究序說의 一端」, 『成大 제4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1(『實是學舍散藁』, 203~204면).

38) 「崔漢綺의生涯와思想」, 『韓國近代人物百人選』, 『신동아』 부록, 1970(『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162~169면).

다음에 올 개화사상에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³⁹⁾

이우성은 최한기가 정약용보다 근대 지향의 학문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시대와 학문 정보의 차이에서 찾았다. 최한기는 새로운 책을 통해 중국과 서양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살기를 고집하였으나 정약용은 강진의 벽지와 마현의 시골집에 머물면서 세계 소식에 통하지 못하였다.

‘전세기(前世紀)의 유로(遺老)’인 다산 정약용은 여건이 상당히 달랐다. 젊은 날에는 관료생활에 분주하였고 한창 연구열의와 연구작업이 왕성할 시기에는 멀리 강진(康津) 해곡(海曲)의 벽지에 있었다. 해강이 7세 되던 해에 다산이 강진에서 돌아왔지만 이미 환갑이 가까운 연령으로 자기의 학문세계가 완성된 뒤였으며 유배에서 풀려난 몸이면서도 서울에 발붙이지 못하고 마현(馬峴) 시골집에 그대로 눌러앉자, 세계 소식에 통하지 않는 외진 길에서 여생을 소요하고 말았다. 다산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대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몇 겹의 제약이 있었던 것은 해강에 비해 시대와 환경이 그만큼 불리했던 때문이다.⁴⁰⁾

최한기의 사회관-사·농·공·상 등 사회 제계층에 대한 관점 속에는 19세기 중엽의 우리나라 농·공·상 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농보다 공·상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가진 최한기의 생각은 그 자신의 도시적 생활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당시의 우리나라 현실의 투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⁴¹⁾

이우성은 정약용이 ‘경학의 실학’에 머물고 최한기가 ‘과학의 실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와 접근할 수 있는 학문 정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최한기의 학문을 정약용의 학문보다 훨씬 근대적이며 시민적인 학문으

39) 「崔漢綺의生涯와思想」, 『韓國近代人物百人選』, 『신동아』 부록, 1970(『韓國의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169면).

40) 「崔漢綺의社會的處地와서울생활-崔漢綺研究序說의一端」, 『成大 제4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1(『實是學舍散藁』, 198면).

41) 「崔漢綺의社會觀-「氣學」과「人政」의連繫 위에서」, 『東洋學』 18, 1988(『實是學舍散藁』, 220면).

로 보았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우성이 조선시대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2장 ‘사대부의 유교정치’는 14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의 시기이고, 3장 ‘실학의 시대’는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시기이며, 4장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은 19세기 후반의 시기였다. 이하에서는 이우성이 조선시대사를 이해하는 방식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조선시대의 역사는 사대부가 주도하였으며, 사대부가 분화되는 현상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우성은 고려 후기에 귀족과 사대부의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성리학(신유학, 주자학)의 시대가 열렸고, 이후 사대부는 勳舊·權貴와 士林, 閥閥·勳臣과 재야 사대부, 山林과 실학자, 서울 근기 지역의 실학자와 삼남 지역의 士로 계속해서 분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전반적으로 사대부가 역사를 주도한 시대였고, 실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은 사대부에서 분화한 훈구와 권귀, 별열과 훈신이었다.

이우성은 특히 별열과 재야 사대부를 구분할 때 전자를 ‘세습적 특권 집권층’, 후자를 ‘영구 몰락 실권층’이라 표현하였다. 여기서 ‘재야 사대부’는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를 가리키며, 재야 사대부도 다시 분화되었다. 재야 사대부 가운데 산림은 권력에 참여하여 별열의 정치적 이용물이 되었고, 삼남 지역에 거주하는 士는 중소 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주자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울과 근기 지역에 거주하는 士는 실학자가 되어 당대 현실을 개조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를 따르면 실학자는 ‘영구 몰락 집권층인 재야 사대부로서, 서울과 근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실을 개조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성향을 가진 학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우성의 이러한 이해 방식은 사대부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그들의 활동 양상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설명하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왕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우성은 18세기에 영조와 정조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국정

을 처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성리학의 시대가 실학의 시대로 변화하는 데에는 국왕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 것 같아 흥미롭다.

영조와 더불어 정조는 국왕으로서 능력이 어느 수준에 달한 편이어서, 영정 시대는 국정 처리가 국왕의 주체적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고 고질적이었던 당쟁의 물결도 다소 약세화되었다. 이 시기 산림들은 비록 송시열 시대의 성세는 없어진 지 오래이지만 유림의 대표로서 공적 자격으로, 국왕에게 인격적으로 중대(重待)를 받았던 것이다.⁴²⁾

둘째, 실학은 당대의 현실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학문이며,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학문으로 보았다. 이우성은 실학을 규정하면서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라는 시기와 ‘서울과 근기’라는 지역에 나타난 학풍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실학’의 뜻이 비현실적인 학문을 바로잡아 현실성을 되찾고 실제 사정에 입각한 실제적 사고를 하는 학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학은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보통명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우성은 실학을 나타냈던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고유명사로 바꾼 것이다.

이우성은 15~16세기에는 예학과 성리학이 실학이었으나 이후로 현실적인 의의가 희박해졌다고 하였고, 고유명사인 ‘실학’도 성리학에 대한 비판 여부를 떠나 실제 사정에 입각한 실제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근대화의 달성이 목표이던 시기에는 실학파의 주장이 오늘의 실학일 수 있었지만, 근대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처할 사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실학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에 대한 실제적 사고였고, 당대의 현실이 변하면 학문의 초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우성은 대학교에 재직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두 차례 해직된 경력이 있으며,⁴³⁾ 이는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실제적 사고를 실천한 활동으로 이해된다.

42) 「李朝 儒敎政治와 ‘山林’의 存在」, 『東洋學學術會議 論文集』, 성균관대학교, 1975(『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310면).

43) 이우성은 1961년 4.19혁명이 진행될 때 학원민주화운동에 가담하였다가 동아대학에서 해직되었고, 1980년 10.26사태 이후 군사정권이 등장하자 ‘361교수성명’을 주도하였다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해직되었다.

셋째, 조선시대 사대부의 학문적 본령에 해당하는 經學, 性理學, 禮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하였다. 이우성은 ‘실학파의 경학’은 명분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에 대하여 자기 해방을 꾀한 것이라 하였고,⁴⁴⁾ ‘다산의 경학’은 인간의 자주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관념에서 출발한 성리학의 논리를 사실에서 출발하여 완전히 바꾸어 놓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였다.⁴⁵⁾ 또한 권철신을 비롯한 성호 좌파 학자들이 주자학을 회의하거나 비판하고 유교 경전을 새롭게 해석한 것은 ‘사상의 자유의 역사’를 탐색한 것이라고 하여,⁴⁶⁾ 실학파의 경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실학파가 현실 문제를 연구하며 개혁을 주장할 때 유교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했으므로 실학파의 경학에 관심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실학파에 속하지 않는 학자의 경학으로까지 관심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이우성은 15~16세기에 예학과 성리학은 학문적으로 발전되고 심화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17세기 이후 예학은 변태한 이론과 형식적인 예법에 대한 논쟁으로 흘렀고, 성리학은 권력층의 집권을 옹호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측면을 강화하고 관념화되는 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17세기 이후 예학과 성리학은 현실적 의의가 희박한 학문이 되었고,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를 보면 이우성의 조선시대사 연구는 사대부의 학문 경향을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입장과 긴밀히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시기별로 당면한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經世論을 중시하였다고 하겠다. 이는 그가 1990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實是學을 마련하면서, 시대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실사구시를 추구할 것을 다짐하는 발언과 통하는 관점이었다.

실시(實是)란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준말이다. (중략) 실사구시는 협의(狹義)와 광의(廣義)의 두 가지로 봐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 실학의 유파를 셋으로 나누면서 김정희와 같은 경서·전고·금석 등 고증 쪽에 속한 학자를 실

44) 「星湖의 春秋書法論 批判과 그 聖人觀」, 『孔子誕辰 2540周年 紀念論文集 下』, 1992(『實是學舍散藁』, 133면).

45) 「茶山과 李載毅의 問答」, 『佛敎와 諸科學』, 1987(『實是學舍散藁』, 169면).

46) 「鹿菴 權哲身의 思想과 그 經典批判-近畿學派에 있어서 退溪學의 계승과 변화」, 『退溪學報』 29, 1982(『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126면).

사구시파(實事求是派)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대 고증학자들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협의의 실사구시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사변적 학풍의 비생산적 논쟁과 어떤 일정한 이념과 체제에 묶여 시대현실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현실에 즉한, 실제사정에 대한 과학적 파악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또한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종전 실학에 관한 유파의 구분에서 주로 협의의 실사구시를 말해왔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여기 ‘실시학사’의 명칭으로서의 실사구시는 협의를 포함하면서 좀더 광의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⁴⁷⁾

투고일: 2023.01.13

심사일: 2023.02.21

게재확정일: 2023.03.02

47) 「序」, 『實是學舍散藁』, 創作과批評社, 1995(『實是學舍散藁』, 169면).

참고문헌

朴趾源, 『燕巖集』

李重煥, 『擇里志』

崔瑄煥, 『顧問備略』

김문식, 「1917년 성호 문집의 간행을 위한 통문」 『문헌과해석』 87, 문헌과해석사, 2021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67 · 1976

千寬宇, 「磻溪 柳馨遠 研究」 『歷史學報』 2 · 3, 역사학회, 1952 · 1953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李佑成歷史論集』, 李佑成著作集 1, 창비, 2010

_____, 『實是學舍散藁』, 李佑成著作集 4, 창비, 2010

_____, 『高陽漫錄』, 李佑成著作集 8, 창비, 2010

Lee Woo-sung's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Kim, Moon-sik

This paper examined the way Lee Woo-sung understood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was the period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late 17th century, when Confucian politics of gentries based on Neo-Confucianism was actively carried out. The second was the period from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when practical scholars who lived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active in thinking about real problems. The third was in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e idea of practical learning led to the idea of enlightenment.

Lee Woo-sung believed that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was led by gentries, and that the gentries continued to differentiate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ituation. Among the gentries, the actual power was Hungu勳舊 and Beolyeol閥閥, and the gentries alienated from power were Sanlim山林, practical scholar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gentries living in the provinces. Lee Woo-sung did not emphasize much the role of the king i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Lee Woo-sung said, Silhak實學 is a study to objectively grasp and solve the reality problems of the time, and Silhak appeared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and the areas where Silhak was active were limited to Seoul and Gyeonggi-do area. However, he saw Silhak as a discipline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and he thought that the focus of studying Silhak should also change before and after Korea's modernization was achieved.

Lee Woo-sung had relatively weak interest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Neo-Confucianism, and liturgical science, which correspond to the academic spirit of the gentries. He was interested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of practical scholars such as Jeong Yak-yong and Kwon Chul-sin, but did not study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of other scholars. In addition, Neo-Confucianism and liturgical science were considered

to have achieved great achievements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but after the 17th century they became a study with little practical significance.

Lee Woo-sung's study o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emphasized the theory of governing by understanding the academic trends of gentries in close connection with their socioeconomic situation and identifying the real problems facing each period and preparing solutions.

Key Words : Lee Woo-sung,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gentries, Silhak實學, the theory of governing

